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1주일
제37권 1호(가해) 2016년 11월 27일

[묵상]



<대림 제1주일>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
온통 삶의 목적을 둔 때였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일이거나,
신앙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상적 삶들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집중하였지
하느님에 관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때가 오더라도 기회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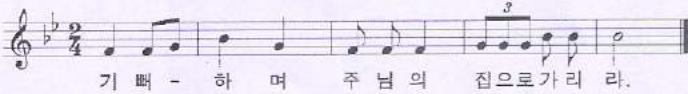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이정식 아브라함 (생)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최창출 스테파노, 신선미 루시아, 권요셉 & 박마리아 & 오요셉, 이희곤, 장숙희 & 박진영, 배일호 헨리 & 이태순, 김영순, 강우슬라, 김제성 아가다 & 박희성 테레사, 정점례 올리안나, 이효희 마리아 & 신헌태, 송공량 카타리나 & 송봉규 요셉, 김종환 야고보, 오진 베드로, 민경완 스테파노 (생)손석 스테파노 & 손두화 스테파니아, 토복구역원 가정, 김앤디 안드레아, 티파니권 요세피나, 황운재 베드로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엄영숙 마리아, 강지은 안젤라, 이름을 모르는 골수 기증자, 박정미 클라라, 권영한 프란치스코, 최동한 안드레아, 이재용 안드레아, 김기정 루시아 & 김옥보 안나 & 이은경 체칠리아, 박고은, 강순복 요세피나 & 강알렉스 & 강바오로, 김지훈 대전 안드레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3,11-14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 마태오(Matthew) 24,37-44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2. 한국 교회의 성장(1953-1962년)

2-1. 남한 교회의 전쟁 극복

휴전 이후 한국 교회는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구가 증설된다. 지목구이던 춘천이 1955년에 교구[代牧區]로 발전하였으며, 1957년에는 광주교구, 전주교구, 부산교구가 설정되었다. 이어서 1958년 대전교구가 설정되어 해방 직전 일본 식민지 정권의 강요로 은퇴를 강요당한 파리 외방 선교회 선교사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가 정식으로 교구장에 취임하였다. 청주교구(1958년)와 인천교구(1961년)도 설정되어 미국 메리놀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이 두 교구를 관장한다.

1950년대 한국 교회 발전에는 수도회가 크게 기여하였다. 극심한 전란의 피해를 입은 덕원의 성 베네딕도회는 경상북도 왜관에 재정착하였으며(1952년),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도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예수회가 진출하여 서울에 서강 대학교를 개교하였다(1960년). 그 밖의 몇몇 남자 수도회들이 새롭게 창설되거나 한국에 진출하였다. 이 시기에 여자 수도회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다.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전란의 과정에서 혹심한 시련을 당했지만, 전후 한국 사회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며, 가르멜 수녀회도 관상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함흥교구와 연길교구에서 선교하던 성 베네딕도회 수족의 수녀회들도 남한 사회에 재정착하여 선교에 종사하게 된다. 평양교구 소속 수녀회이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서울에 정착하였고, 한국 순교 복자회, 서울 성가 소비녀회, 포항 예수 성심 시녀회 등 방인 수녀회도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 시기에 여러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곧 한국 사회와 교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1950년대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각종 신심 단체와 사도직 단체들의 봉사와 활동을 주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레지오 마리아’의 한국 진출을 들 수 있다. 1953년 전라남도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출발한 레지오 마리아는, 개인 신심 위주의 이전 단체들과는 달리 선교와 교회 활동에 대한 신자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교회는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용 조합 운동을 시작하였다.

<계속>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24	124	124
봉헌	269	269	129
성체	301	301	269
파견	131	131	131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대림 시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대림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새기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 실로 결정적인 시기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이 순간순간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믿음을 갖고 깨달아 알아 가는 감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준비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한 목표에 맞추어 주님의 오심에 대해 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로마 13,11 참조)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이 있는 산으로 밀려드는 광경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이웃과 함께 깨닫는 기도 생활이 대림 시기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시기와 질투와 전쟁보다는 주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인 주님의 말씀과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대림 시기 동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공동체에 활력을 주시는 성삼위 신비를 충분히 깨닫고 알아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삶보다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변 이웃들과 기도 생활을 함께하면서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성화시켜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깨달음을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실현시킨다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정의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혼련된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맛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업적을 깨닫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발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 문입니다.(로마 13,11)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참으로 모를 이유

나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지.
여러 날 밤새우며 일도 했고 부지런히 저축했던만
돈은 여전히 모이지 않네.
철들고부터 30년 넘게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살은 점점 더 찌고 있군.
노력보다 요행을 일삼고
나쁜 짓 만만찮았지만
아직 그만한 벌 받지 않고 용케 버티고 있네.
참 모를 일이야.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한경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전례에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다리
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따라서 성경 말씀도 '깨어 기다리
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12월 17일부터 성탄 전야인 12월 24일까지의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림 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영
광송'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것
은, 회개와 속죄의 시기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오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대림 초 네 개를 마련하여 매주 하나씩 올려 밝히는데, 이
는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 주면서 마음의 준비
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시작된
다. 곧 교회 달력(전례력)으로는 대림 제1주일이 새해의
첫날이다.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20일(화)

- 고해성사 : 오후 7시 (참회예절 부터 시작)
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 시기 중(대림1주부터 매일)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림특강

- 일시 : 대림 1주 (11월27일),
대림 2주 (12월4일) 11시 미사 중
- 장소 : 성전
- 주제 : "어떻게 들을 것인가?"
- 강사 : 양성욱 바오로 신부(성 김대건 안드레아성당)
바랍니다.

◆ 전 대추 판매합니다

- 27일 (오늘 주일), 12월4일(다음주일) 미사 후에 올
뜨레아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서 품질이 우수
하고 맛도 좋은 대추를 판매합니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 판매가격 : \$ 20 / 3 파운드
 - 주최 : 백삼위 올뜨레아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2016년도 연차총친목회 안내

- 일시 : 12 월 4 일 (주일)
11 시 미사후 강당에서 점심식사, 1시 ~ 3 시 장기자랑
- 대상 : 레지오 마리에 행동단원
- 준비물 : 뗏세라, 묵주
- 연락처 :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전교우 대청소: 12월 18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천교 점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27일 : * 토동2,3반 : 짜장밥(\$3)
* 주일학교 : 추수감사절 연휴 수업 없음
- 12월 4일 : * 소공동체 : 김밥(\$4), 컵라면(\$2)
* 주일학교 : 스파게티 (2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경철호 고천용 김관기 김광자 김광호 김대우 김 명 김성현 김인성 김정엽 김진우 류현옥 박운모 반정이 송재훈 안재만 원건희 윤화경 윤희동 이미예 이영석 이재정 이현주 장영우 장영진 조화숙 차정애 최원석 최진수 황지영 합계: \$ 4,055	성전헌금	강미순 경철호 고천용 김관기 김대우 김정엽 송재훈 안재만 원건희 윤화경 이미예 이재정 이현주 장영우 장영진 조화숙 최원석 최진수 황지영 합계 : \$2,020 감사헌금 : \$700(김민석, 이재용)
주일미사헌금 : \$2,710			

◆ 2016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6년) 조화가 가능합니다.

◆ 추수 감사절 연휴 휴강

- 오늘 주일(27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 일시 :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 백삼위 한인 성당

◆ 주일학교 전진 2 반 피정

- 일시 : 12월 16일~18일
- 장소 : Lake Arrowhead

◆ 주일학교 Thanksgiving 행사- 12월 4일까지

* Clash of Cans, 캔 푸드 모이기*

- Thanksgiving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된 모든 canned food를 LA Food Bank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 한국학교 TA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SAT 시험을 마친 학생으로 9학년 이상.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이메일 : 103skecks@gmail.com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 원서 교부처 : 바오로의 딸 서원, 성 바오로 서원
http://uus.pauline.co.kr 인터넷 다운로드
- 우편성경공부 : uus@pauline.or.kr
- 이지리닝 성경공부 : e-learning@pauline.or.kr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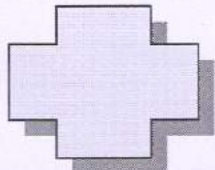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지경수 마태오 11/16(수)오전11시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12(토)오후6시30분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18(금)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페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11/19(토)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형삼 요셉 11/12(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1/8(화)10/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1/18(금)7/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15(화)오전11시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김희연 루시아 11/19(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6(일) 오후5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2(토)오후7시 성당2층 룸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메네틱다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11/11(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정주 요아킵 11/11(금) 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박은혜 클라우디아 11/13(일)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11/8(화)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전례의
선물

미사 때의 동작



글: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그림: 박우철 도밍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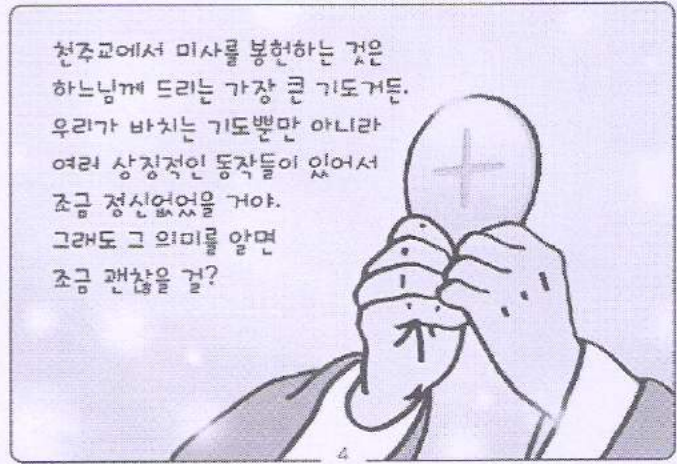


모두 일어나서십시오.
모두 앉으십시오.
모두 일어나서십시오.
신앙, 신부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미사가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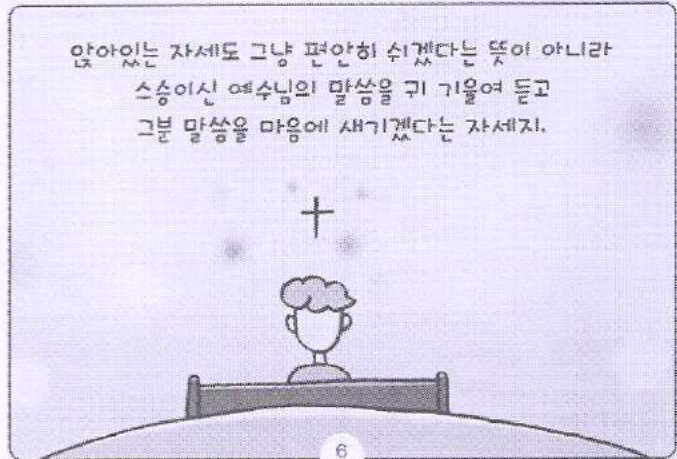
아이구 말도 마라.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시켜서 아주 피곤해.

레지오
단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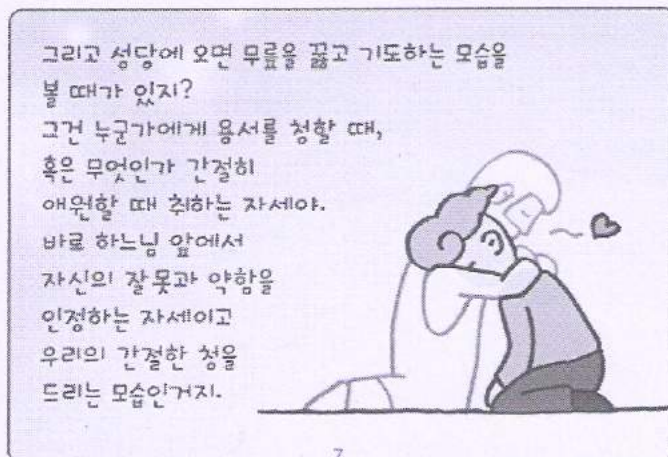
천주교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도거든요.
우리가 바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상징적인 동작들이 있어서
조금 정신없었을 거야.
그래도 그 의미를 알면
조금 괜찮을 걸?



일어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야.
일상생활에서도
어른들 말씀 듣기 위해
똑바로 서서 손을 모으듯,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일어서 있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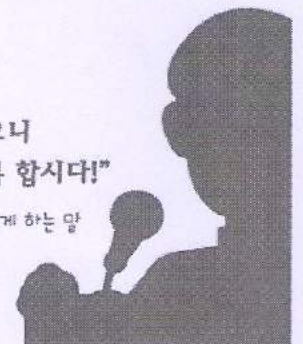
앉아있는 자세도 그냥 편안히 쉬겠다는 뜻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자세지.



그리고 성당에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그건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때,
혹은 무엇인가 간절히
애원할 때 취하는 자세야.
바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악함을
인정하는 자세이고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리는 모습인 거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하고
지극히 정결하며
천상의 생명을 주시고
공경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 동방 교회 전례, 영성체 후 사제가 회중에게 하는 말



우리신앙의 어머니, 성모마리아

어느 날 나자렛이란 작은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천사를 보자 당황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등 아주 다양한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등장한 천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6-38

겹에 벌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곧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며 딱 자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작명까지 해주고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며칠간 잠 못 이루며 시름에 빠졌지만,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39-56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죽음의 삶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그녀의 말을 믿을까요? 특히 약혼자 요셉은 무척 괴롭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이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1,18-25.

요즘에도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은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모 마리아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무척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은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마리아교’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성모님이 교회의 으뜸 성인으로 존경 받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굳은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본보기인 거죠.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때가 언제 있었는지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보아라,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는 뜻이다.

(마태 1,23)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입니다. ()하신대로 ()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루카 1,38)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보다 양심의 순수함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 십자가의 성요한 -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006
☎(424)337-0788/0789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용자 / 재용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Any repair 10% off up to \$50.00 with AAA
card 소지한 분

바디 + 정비
EUROPEAN CAR 정비전문
MECERDES BENZ & BMW 전문 정비,바디
DIESEL ENGINE 전문
1-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받침,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Prudential 푸르덴셜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